

무려 200시간이나 더 길다. 정부가 지금 할 일은 주 69시간 동안 기절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벨기에 등 해외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 4일제와 같은 실노동시간 단축방안을 고민하는 것이다.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이번 노동시간 개편방안은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 찾은 것이다.

정부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법안은 더 이상 고쳐 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. MZ세대 몇 명 만나고, 토론회 몇 번 더 한다고 해서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. 더 많은 비판에 직면하기 전 신속한 철회만이 답이다. 노동자들은 기절 근무가 아니라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한다. 우리 위원회는 정부에 장시간·집중 노동 법안의 재검토가 아닌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.

2023. 3. 15.(수)

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
위원장 이 용 우

